2021

(사) 일과건강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Center for Worker's Health and Safety

정 기 총 회

○ 일 시 : 2021년 2월 26일(금) 19시

○ 장 소 : 녹색병원 지하강당

● 총 회 자 료 순 서 ●

● 총회 순서 ● ·····3

〈총회 개요〉 ·····4

Ⅰ. 제1호 의안 :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5
Ⅱ. 제2호 의안 :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 승인의 건 ·····46
Ⅲ.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74
Ⅳ. 제4호 의안 : 기타 안건 ·····75

● 총회 순서 ●

- 개회선언
- 성원보고
- 서기 및 감표위원 선출
- 회순통과
- 안건심의
- 폐회

<총회 개요>

2021년 제1차 총회 개요

◯ 일 시 : 2021년 2월 26일(금) 19시

◯ 장 소 : 녹색병원 지하 2층 강당

◯ 참 석 : 총 회원 101명 중 (　　)명 참석, (　　)명 위임

<의결 안건>

1. 제1호 의안 :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3.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4. 제4호 의안 : 기타 안건

Ⅰ. 제1호 의안 :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1. 총평

1) 2020년 노동자 안전보건 운동

○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의 한 해였음. 예상치 못했던 상황은 실업률의 증가, 임금의 감소, 복지의 후퇴 등 노동자 상태 전체를 악화시켰고 이 과정에서 두 번째 이천참사가 발생하는 등 안전보건 영역에서도 그간 지적되었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음.

○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노동자 사망은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결성을 통해 '10만 국민 동의 청원'을 이루어 냄. 이후 각 정당에서도 입법발의가 되었으나 유족의 단식이 시작된 12월에 가서야 언론의 조명을 받는 상황이 되었고 2021년 1월 8일 임시국회에서 제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제외되고 공무원 처벌 조항이 삭제되는 등 당초 운동본부 입법안은 그대로 관철되지 못했으나 한국사회 안전보건의 한 축을 새롭게 형성하는 성과였음. 향후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가 필요한 상황임.

○ 코로나19 상황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가 생긴 반면 과로 사망하는 필수노동자가 발생하는 상황 또한 2020년의 특수성으로 나타났는데 택배노동자가 대표적인 사례였음. 사회적 의제가 되지는 못했지만 배달노동자 일체, 청소노동자 등도 과로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됨.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투쟁은 전체적으로 잘 대응되었고 언론 환경도 좋았음. 향후 비대면 노동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2) 일과건강 활동 총평

○ 2020년 일과건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운동본부에 집행단위로 참여하면서 조직 사업을 진행함. 시민사회의 관심을 독려하고 운동본부 참여를 설득함. 또한 각 지역이나 시민사회 영역에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토론하는 활동을 진행함. 농성과정에서 조직팀은 전체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함. 조직팀 구성조직의 헌신성은 본 활동에서 가장 돋보였음.

○ 또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접하게 되면서 ‘과로사예방법’ 도입을 주장해 왔던 일과건강에서는 공동대책위원회에 집행단위로 참여하면서 실태조사와 토론회, 기자회견, 성명서 등 작업에 함께 하였고 ‘추석연휴 분류작업자 배치’,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출범시키는 성과를 만들었음. 향후 과로 없는 택배 노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합의 안이 마련되어야 함.

○ 한편 2012년 공식적으로 출범한 일과건강이 향후 10년 활동의 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은 연중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 결과 취약노동자 집중사업 대상 선정과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사업을 통해 감춰진 안전보건 취약계층의 문제를 한국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실질적인 개선과 보상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키로 함.

2. 세부 사업 평가

<표 2> 2020년 일과건강 주요 사업

대분류	세부사업	시기
1. 회원사업	(1) 회원사업(업종별, 지역별)	연중
	(2) 지역건생지사 사업(전남, 평택, 전북, 충남, 충북, 경남, 파주, 전국모임)	연중
2. 중점사업	(1)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만들기	연중
	(2) 취약노동자 안전보건 향상 논의	연중
3. 포럼 및 활동가 양성사업	(1) 노동자 건강권 포럼	2월
	(2) 안전보건 실무학교	4월
4. 연대 및 대책사업	(1)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사업	하반기
	(2)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사업	연중
5. 조사사업	(1) 명화공업 수면장애 실태조사	상반기
	(2) 서울교통공사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분야 노동자 괴롭힘 실태조사	상반기
	(3) 도봉구 청소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하반기
6. 대중미디어 사업	(1) 홈페이지	연중
	(2) 웹진	월 1회
	(3) 소식지	분기 1회
	(4) 팟캐스트	월 2회

1) 회원사업

(1) 회원 증가 계획

① 목표

○ 2020년 개인회원 100명 순증 계획으로 700명 확보. 단체회원은 불안정한 후원을 한 여수플랜트지부, 충남플랜트지부를 정상화 하고 화섬과 금속, 공공에서 각 1개소 이상 확대 모색.

② 진행

○ 통상 노동자 건강권포럼과 실무학교를 통해 회원 가입을 독려하는 구조였으며 지역사업 활성화를 통해 회원을 증가시키는 계획이었으나 2020년은 모두 온라인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회원 확대를 이루지 못함. 지역가입자가 64명 신규 유입되었으나 51명이 경제사정 등의 문제로 탈퇴하면서 순증의 규모는 10여 명 수준임.

○ 전체 회원 수 608명. 신규 가입 64명, 해지 51명.

<표 3> 2020년 12월 말 회원현황(단위: 명)

	총회원수	정회원	후원회원
일과건강	188	53	135
전북건생지사	103	6	97
전남건생지사	93	12	81
충남건생지사	71	12	59
평택건생지사	71	9	62
경남건생지사	57	7	50
구미건생지사	19	2	17
충북건생지사	6	0	6
전체	608	101	507

③ 평가

○ 후원회원, 단체회원 목표달성을 이루지 못함. 불안정한 시기였던 만큼 조직 확대 제안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2) 지역네트워크(건생지사) 사업

① 전남건생지사

○ 사업목표

- 지자체 비영리단체 등록과 공모사업으로 체계와 운영을 안정화한다.

- 지역현안 대책과 화학물질감시 기획사업을 통해 회원을 배가하고 위상을 높인다.

○ 진행현황

- 2월 5일 금호피앤비화학 2공장 탱크 내 추락 사망재해(2월2일) 민관합동조사단 촉구 기자회견
- 5월 1일 “이천물류창고 반복된 참사! 국민조사위원회 구성하라!” 전국건생지사 공동성명서 발표
- 5월 11일 인도 엘지화학 참사!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 5월 26일 전남건생지사 상반기 운영위원회 개최
- 6월 22일 삼남석유화학 보일러 정비작업 중 열매유 누출 화재 사고 대응
- 6월 30일 1차 전국 건생지사 중앙회의 참가
- 8월 10일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폭발사고, 우리나라 항구 보관실태 개선대책 촉구 성명 발표
- 여수산단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 실무위원회 참가
- 9월 24일 미평공단 도로횡단개설반대 성명 및 설문조사, 현수막 선전전
- 10월 12일 ~ 23일 화학물질 안전 시민강사단 양성교육 실시: 총 7강 온라인 강의
- 10월 30일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시민사회 역량강화 워크숍 참여
- 11월 4일 제1회 화학안전주간 참여 : 시민사회대표 축사(김대희 대표)
- 11월 6일~15일 제10회 산업재해없는 안전한 여수를 위한 시민걷기대회 개최
- 11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산소배관 점검 중 폭발사고 공동성명 발표
- 12월 23일 3차 전국 건생지사 온라인 중앙회의 참가
- 회원현황 : 2020년 12월 현재 93명(전년대비 6명 증가)

○ 평가

- 작년에 평가된 부분이 개선되지 못하였다. 비영리단체 등록과 전남서부권, 광주권 담당자 역할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담 사무국장에 대한 고민도 진전이 없었다.
- 창립 6년이 지나고 있는 건생지사로서 2021년에는 적극적인 조직운영과 사업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다만, 여전히 환경부와의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에서 전국적 논의를 이끌고 있다.

② 평택건생지사

○ 사업목표

- 집행체계 구축과 공모사업 활성화를 통해 조직을 확대한다.
- 기획교육과 감시캠페인 활성화로 지역 내 조직의 위상과 역할을 높인다.
- 산재상담과 작업환경 상담 및 개선사업으로 회원을 확대한다.

○ 진행현황

- 격주 토요일 평택건생지사 운영진 정례 회의 및 단합대회
- 5월 1일 “이천물류창고 반복된 참사! 국민조사위원회 구성하라!” 전국건생지사 공동성명서 발표
- 5월 11일 인도 엘지화학 참사!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 6월 30일 1차 전국 건생지사 중앙회의 참가
- 8월 10일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폭발사고, 우리나라 항구 보관실태 개선 대책 촉구 성명 발표
- 9월 25일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1만인 서명 기자회견
- 10월 13일 2차 전국 건생지사 중앙회의 참가

- 10월 30일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시민사회 역량강화 워크숍 참여
- 11월 5일~17일 마주모와 함께 하는 4기 마을문화센터 교육 총 5강 실시
- 11월 11일~12월 2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평택을 위한 시민양성교육 총 7강 실시
- 12월 23일 3차 전국 건생지사 온라인 중앙회의 참가
-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꿈의 학교 실시(6월 15일~12월)
- 탄저균 추방, 생물무기 실험실 반대 수요 1인 시위 참가
- 평택시 도일동 소각장 건축 허가 반대 탄원서 및 1인 시위, 성명발표
- 환경감시단 환경정화 및 감시 활동
-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 참여
- 회원현황 : 2020년 12월 현재 71명(전년대비 3명 감소)

○ 평가

- 평택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2020년 교육 사업위주로 진행하였으나, 2021년은 지역에 지속적인 문제점인 소각장 반대 캠페인 운동에 적극 결합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조직 역량 강화 하였다.
- 하반기 화학물질 시민양성교육은 개최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운영위 대상의 교육으로 축소하여 진행함으로써 목표였던 표준화된 매뉴얼은 축적되었다. 하지만 교육 사업단 조직 및 강사 부분은 양성 인원이 부재하고 교육 관련 홍보 활동 등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 2년 간의 공모사업이 활성화되는 성과는 있었으나 반면 화학물질감시단체로서 본연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평가 속에서 감시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 다양한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회원확대는 이루어지지 못하여 적극적인 확대사업이 필요하다.

③ 전북 건생지사

○ 목표

- 전북 3개시(전주,익산,군산) 조직체계 완성과 완주군 초동주체 발굴
-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사단 교육 실시
-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사업 지원(익산, 완주) 및 전국 네트워크 참여
-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장 산재 상담과 교육사업으로 회원확대

○ 진행현황

- 1월 2일 ASA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기자회견참석, 성명서, 노동부 지청장 면담 (완주 공장)
- 1월 13일 지역대비체계 구축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회의 (군산시청)
- 1월 15일 학교석면공사 석면안전관리민관협의회 회의와 현장 모니터링 (전북도교육청)
- 1월 16일 전북건생지사 운영위원회 회의 5회 (익산 커피숍)
- 1월 23일 노동안전 현장 실태 조사 설문 활동 (민주노총 전북본부)
- 3월 9일 SH에너지화학 폭발(사망)사고 관련 활동 (군산 노동지청)
- 4월 10일 전국 화학사고 대비체계 기획회의 (충북 옥천)
- 5월 1일 “이천물류창고 반복된 참사! 국민조사위원회 구성하라!” 전국건생지사 공동성명서 발표
- 5월 28일 전북현장실습위원회 관련 활동 (전북도교육청)
- 6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 전북본부)
- 6월 27일 총회 [13명 참석. 45명 위임] (전주 민주노총 전북본부)
- 6월 30일 1차 전국 건생지사 중앙회의 (충북 오송 컨퍼런스홀)

- 7월 14일 군산화력발선소 신규건설 저지 대책회의 (군산민생실연연대)
- 7월 31일 군산아이쿱 바른생활 실천운동 유리용기 지원 (군산 나운동 아이쿱생협)
- 8월 12일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학교(유자학교) 군산교육장 면담 (군산 교육지원청)
- 9월 7일 군산세아베스틸 사망사고 논평과 관련 활동 (군산 노동지청)
- 9월 12일 사무실 계약 (군산 나운동)
- 9월 25일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1만인 서명 기자회견 (청와대 분수대 앞)
- 10월 13일 2차 전국 건생지사 중앙회의 (평택 건생지사 사무실)
- 10월 23일 나투라 미디어 화재사고 군산공장 현장출동 (군산 수출자유지역)
- 10월 29일 노후설비, 방치하면 위험하다 전단지 신문 삽지 배포 (전주,익산, 군산)
- 12월 23일 3차 전국 건생지사 온라인 중앙회의 참가
- 회원현황 : 2020년 12월 현재 103명(전년 대비 31명 증가)

○ 평가

-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대중들을 상대로 한 사업은 진행하지 못하였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계획한 것에서 약간 축소된 상태로 모두 진행되었다.
- 이제 우리단체가 체계가 잡히고 안착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기존 사업계획에는 없었으나 사무실을 임대하게 되었고, 군산아이쿱과 함께하는 화학물품(플라스틱) 저감 활동도 전개 하였다.
- 유자학교도 계획에 없었으나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신규로 새롭게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제1회 화학 안전 주간에 우리단체 대표가 환경부표창을 받기

도 하였다.
- 코로나19는 기후위기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생각하기에 기후 위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활동 방식도 모색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교적 원만히 사업을 진행한 한해였다.

④ 경남 건생지사

○ 목표
- 집행체계와 운영 안정화
- 감시단 공개모집과 기획교육

○ 진행현황
- 5월 1일 “이천물류창고 반복된 참사! 국민조사위원회 구성하라!” 전국건생지사 공동성명서 발표
- 5월 11일 인도 엘지화학 참사!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 6월 18일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창원사업단 1차 회의 참가
- 6월 30일 1차 전국 건생지사 중앙회의 참가
- 7월 20일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창원사업단 2차 회의 참가
- 8월 10일 레바논 항구 폭발사고, 우리나라 항구 보관실태 개선 촉구 성명 및 라디오 인터뷰
- 10월 13일 2차 전국 건생지사 중앙회의 참가
- 10월 22일 경남건생지사 운영위 회의
- 10월 30일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시민사회 역량강화 워크숍 참가
- 11월 25일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창원사업단 2차 회의 참가
- 12월 23일 3차 전국 건생지사 온라인 중앙회의 참가
- 회원현황 : 2020년 12월 현재 57명(전년과 동일)

○ 평가

-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으로 진행되고 있던 캠페인과 교육사업마저도 연기되는 한해였다.
- 창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직운영과 집행체계에 대한 내실있는 평가과정이 있어야 한다.
- 현재와 같은 대내외 어려운 조건에서 활동전반에 대한 논의가 총회 준비과정에서 필요하다.
- 타 지역의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경남지역 상황에 맞는 사업추진 계획이 필요하다.

⑤ 충남 건생지사

○ 목표

-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 1주년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역할을 높인다.
- 지자체 비영리단체 등록과 지역감시사업으로 체계와 운영을 안정화한다.

○ 진행현황

- 2월 10일 서산산폐장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
- 2월 29일 산폐장 관련 최종협상내용 및 한석화 위원장 단식종료 상황 기자회견
- 3월 4일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사고관련 긴급대책회의
- 3월 4일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2차 피해방지와 민관공동조사단 구성촉구 기자회견
- 3월 10일 노동부 서산지청 항의 방문 요구사항 전달
- 5월 1일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방문 요구사항에 대한 노동부 입장정리

- 5월 1일 “이천물류창고 반복된 참사! 국민조사위원회 구성하라!” 전국건생지사 공동성명서 발표
- 6월 11일 엘지화학대산공장 폭발사고 원인조사와 대책촉구성명서 발표
- 7월 10일 충남건생지사 정기총회, 제2회 운영위원회 실시
- 7월 28일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과 발암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 8월 10일 레바논 항구 폭발사고 관련 전국건생지사 공동성명서 발표
- 9월 21일 구미불산누출사고 8주기 맞아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서명기자회견
- 9월 24일 충남건생지사 운영위원회
- 10월 13일 2차 전국 건생지사 중앙회의 참가
- 11월 4일 제1회 화학주간행사 권경숙운영위원님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12월 7일 서산시 화학사고대비체계 구축 회의 참석
- 12월 18일 제2회 화학사고없는 서산만들기 온라인시민걷기대회(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추첨)
- 12월 23일 3차 전국 건생지사 온라인 중앙회의 참가
- 회원현황 : 2020년 12월 현재 71명(전년대비 11명)

○ 평가

- 롯데케미칼 폭발사고를 포함한 계속된 대산 석유화학산단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한해로서 대산산단 안전진단 및 지역대비체계 구축 사업에 일조하였다.
- 한화토탈 1주년 사업과 대중적인 2회 서산시민걷기대회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토론회 개최 정도로 축소되거나 온라인 비대면 걷기대회로 대체되었다.
- 하지만, 토론회의 경우 지역사회 이슈를 제기하였고 걷기대회는 온라인

퀴즈참여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기념식과 퀴즈이벤트 행사로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 사업재정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던 비영리단체 등록은 준비 부족으로 내년으로 연기되었다.

⑤ 경북구미 건생지사

○ 목표
- 집행체계 구축과 운영 안정화
- 지역감시단 공개모집 운영

○ 진행현황
- 1월 3일 구미건생지사 운영위 1차 회의
- 5월 11일 인도 엘지화학 참사!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 6월 2일 구미노동인권노동네트워크 참여단체 참여
- 6월 11일 구미건생지사 운영위 2차 회의
- 6월 24일 구미시 환경정책위원회 참여
- 6월 30일 1차 전국 건생지사 중앙회의 참가
- 7월 21일 구미 KEC 화학사고 원인규명 및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촉구성명 발표
- 7월 30일 구미 KEC 구미 화학사고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촉구 구미 고용노동지청 항의방문
- 8월 10일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폭발사고, 우리나라 항구 보관실태 개선대책 촉구 성명 발표
- 8월 13일 구미 산동면 반도체 세정공장 질산누출사고 대응체계마련 촉구 성명 발표

- 9월 27일 구미불산누출사고 8주년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청원 운동
- 10월 13일 2차 전국 건생지사 중앙회의 참가
- 10월 30일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시민사회 역량강화 워크숍 참여
- 11월 4일 화학안전주간 기념식 및 화학3법 정책토론회 온라인 참여
- 12월 11일 고 김용균 2주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구미시민 선전전
- 회원현황 : 2020년 12월 현재 19명(전년대비 3명 감소)

○ 평가
- 불안정한 집행체계에도 불구하고 창립 1년 동안 화학물질감시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진행했다.
- 화학사고 관련 성명과 기자회견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를 연계한 대책활동은 의미가 있었다.
- 노동부문 집행체계를 마련하고 회원확대 사업은 진행되지 못했다. 새로운 사무국장이 선임되면서 조직운영과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요구된다.

2) 중점사업

(1)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만들기

① 사업목표
○ 전국 건생지사 체계완성 및 전국네트워크 구축사업
○ 배출저감제도 정착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개선 사업
○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방치하면 위험하다!' 사업

② 진행보고

○ 2020-1차 전국 건생지사 중앙회의결과

- 일시 및 장소 : 6월 30일(목) 15시 ~ 17시, 오송역 오송컨퍼런스센터 301호

- 참석 : 경남(유정자), 구미(나대활,최현욱,최인혁), 전남(김대희), 전북(조성옥,양상훤,한은주), 충남(신현욱), 평택(김지영,최춘식,권현미),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이근탁), 일과건강(현재순) 총 14명 참가

- 2020년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진행 보고 및 2021년 계획 공유.

(의견 : 우선순위 상위권 지역에 사업신청 의지가 낮을 수 있으므로, 환경부 등에서 반드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 및 설계를 잘 하여야 함_전북 건생지사 조성옥 대표)

- 환경부 지역대비구축사업 전국네트워크 기획단 시민사회 권역별 담당자 추가 논의결과

: 경남권(경남건생지사 유정자 사무국장), 충청권(충남건생지사 신현웅 대표) 추천하기로 함.

- '방치하면 위험하다!' 산업단지 노후설비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운동 계획 수정

・온라인 서명운동 : 화섬 조합원 50% 15,000 이상 진행 중), 7~8월 플랜트 건설노조로 확대

・지역별 캠페인(9~10월), 입법운동(9월~ 구미불산9주년 기자회견부터 입법시까지)

- '진짜배출량 궁금하다!' 화학물질 배출량제도 개선운동 계획 수정

・배출저감제도 개선 토론회(8~9월 경) : 전국네트워크 연구회 운영과 연동하여 진행.

・7개 권역 건생지사 체계 완성 및 캠페인(10~11월), 제도개선운동(2021년

상반기)

- 대기배출량 조작사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기업명단 공개운동과 연동하여 진행.

- 권역별로 노동자 · 시민대상으로한 화학물질 기획교육 적극 추진.

▶ 경남 건생지사

· 코로나로 운영위, 총회 진행못함.

· 환경부 지역대비체계 구축 사업단 1차 회의 참여, 시민단체 참여조직 중 (환경운동연합)

담당 공무원 0.5명이라도 필요하다는 요구 계획.

▶ (경북)구미 건생지사

· 작년 지역대비체계 사업 이후 별도의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여전히 논의 중.

· 올해 지역대비체계 사업 진행하는 포항 환경운동연합과 연대 필요.

· 코로나로 연기된 운영위 및 총회 7~8월 예정,

· 신임 공동대표 김혜란(구미참교육학부모회), 신임 사무국장 최현욱(YMCA 사묵국장)

▶ 전남 건생지사

· 코로나로 연기된 운영위, 총회 7월 말 수련회 예정

· 비영리단체 등록 준비, 화학물질시민강좌(8월부터 14개 강좌, 30명, 예산 1천만원)

· 전남 건생지사(김대희 대표)가 여수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에 위원 직접 참여

·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사업 노동계 간담회 및 시민 토론회 예정

· 11회 여수 시민걷기대회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논의 중

▶ 전북 건생지사

· 6월 27일 총회 개최 : 조직 명칭 전북 안전모에서 전북 건생지사로 변경

・각 시 단위의 책임자 운영위원장 선임 : 군산(고승희), 익산(양상훤), 전주(한은주)
・9월 말 비영리단체 등록 : 회원배가운동 예정
・월 1회로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하고 시작 전 학습진행.
・중앙위원 명암 전국 통일화 제안

▶ 충남 건생지사

・6월 11일 총회(전북건생지사 축사)
・비영리단체 등록 준비, 환경운동연합과 화학물질 학교 진행 방안 논의 중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에 집중, 이후 충남까지 책임지는 조직으로 확대개편 필요
・7월 말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예정
・2회 서산 시민걷기대회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논의 중

▶ 평택 건생지사

・신임 사무국장 최춘식(금호타이어평택지회 노안국장)
・SRF 소각장 시설 반대운동에 집중
・작년 비영리단체 등록 후 공모사업 진행 중 : 청소년 꿈의학교 15강, 주부마주모 4강 교육
・회원 가입원서 전국 통일화 제안
・평택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예산을 NGO활동보조비 명목으로 구성하고 있음. 화학사고는 환경지도과가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의지가 없음. 타 지역 어떤 부서가 맡고 있는지 조사 후 대응 논의예정

- 특조위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운영실태조사 설문참여 :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7월말까지 일과건강으로 취합하기로 함.
- 건생지사 로고 선정 : 제안된 평택건생지사 로고를 활용하여 일과건강에서 제작함.

- 명함, 가입원서 제작 : 전국 통일화된 명함과 가입원서 일과건강에서 제작, 배포함.
- 평택 소각장 반대운동 : 온라인 서명과 공동성명 등 이후 제안된 사업 함께하기로 함.
- 차기회의 : 10월 13일 3시 평택건생지사

○ 2020-2차 전국 건생지사 중앙회의결과
- 일시 및 장소 : 10월 13일(화) 14시 ~ 17시, 평택건생지사 사무실
- 참석 : 경남(유정자), 구미(최현욱), 전북(조성옥,고승희), 충남(신현욱,김기주), 평택(김지영,최춘식,이태희),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박수미), 일과건강(현재순) 총 11명 참가
- 산업단지 노후설비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운동 추진논의
・권역별 건생지사는 온라인 청와대 국민청원에 적극 참여한다 : 청원기간(10월 8일~ 11월 7일까지) 웹자보, 카드뉴스, 영상물2편 홍보
・첨부된 전단지(중대재해예방은 기업처벌법, 화학사고예방엔 노후설비특별법!)는 지사별 상황에 맞게 홍보물로 사용한다. 지사별 제작 기획사 연락처를 본부에 전달한다.
・기념품은 마스트 걸이로 확정하고 본부에서 일괄 제작해서 지사별로 배포한다.
・연내 국회의원실과 입법안 마련한다.
・2021년 상반기 법제정 '노후설비, 방치하면 위험하다!' 캠페인을 진행한다.
-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시민사회 워크샵 논의
・일시 및 장소 : 10월 30일 13시~18시, 서울 프란치스코 회관 420호
・지사별 발표 주제 선정 : 구미(대주제1에 소주제1), 평택(대주제1에 소주제2,3), 전남(대주제2에 소주제1,2), 경남(대주제2에 소주제3), 충남(대주제3에

소주제1), 전북(대주제3에 소주제2,3)

□ 대주제1. 거버넌스의 운용
소주제1. 각 주체들(행정, 기업, 시민사회)의 소통은 원활했나? 소통과 역할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었나?
소주제2. 각 주체들은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었나? 각자의 역할에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었나?
소주제3. 거버넌스가 실제로 운용되려면 시민사회와 행정의 협력이 중요한데, 협력에 필요한 기술 또는 자원이 있다면?

□ 대주제2. 조례의 적용
소주제1. 지방정부(지방의회 포함)는 조례 실행을 위해 어떤 준비를 했나? 조직, 예산, 홍보 등 다각적인 평가 포함 자유로운 논의.
소주제2. 화학사고대비위원회가 잘 운영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시민사회가 준비해야 할 부분, 행정이나 기업에 요구해야 할 부분 등을 포함 자유로운 논의.
소주제3.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도록 동기부여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법률이나 조례의 개정, 여론의 관심 등을 포함 자유로운 논의.

□ 대주제3.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
소주제1. 지역대비체계 구축 이후 주민들은 화학물질 또는 화학사고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접하고 있나? 주민에 대한 정보전달부터 알권리 보장, 주민참여까지 자유로운 논의
소주제2. 지역대비체계에서 주민감시단은 어떤 위상을 가져야 하나? 감시단이라는 이름부터 철학, 감시의 방법, 감시의 범위까지 자유로운 논의
소주제3. 지역대비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

▶ 경남 건생지사
- 구성원 대부분이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핵심주체마련이 시급한 과제
- 환경부 지역대비체계 구축 사업단 2차 회의 참여, 11/5일 회의 예정

· 10월 운영위를 통해 집행체계 점검과 사업계획 논의 예정

▶ (경북)구미 건생지사

· 환경정책 5개년 계획 간담회 진행. 화학사고 내용은 없는 상황임.

·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요구는 계속하고 있음.

· 구성원 대부분이 개별단체 임원들과 구성되어 활동력이 부족한 상황임.

▶ 전남 건생지사

· 온라인 화학물질 기획교육 진행

· 연내 비영리단체 등록 예정

▶ 전북 건생지사

· 사망사고 대응 : 성명, 대책회의, 노동부면담, 방송인터뷰 등

· 화학사고 해제시점 연구 지자체 MOU(군산시와 평택대학교) 자문

· 군산시 화학물질정보 앱 제작 간담회 예정(일과건강 자문)

· 연내 사무실 개소 : 개소식 때 전국건생지사 초청예정

· 비영리단체 등록 연내 추진 : 회칙변경(총회성원 과반수 첨석)이 필요한 상황임.

▶ 충남 건생지사

· 지역대비체계 사업단 3회 진행(화섬본부 조직국장 등 성원 추가)

· 7월 28일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로 지역여론 형성

· 연내 비영리단체 등록 준비 중

· 노동부와 서산시 대산산단 특별안전진단 실시 예정, 노동자,주민 의견수렴 중.

· 2회 서산 시민걷기대회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논의 예정

▶ 평택 건생지사

· 9월 17일 SRF 소각장 시설 반대 승소

·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꿈의 학교 10월 17일 재개예정

· 화학물질 시민교육(남부) 11월 진행 예정

・권현미 시의원 화학사고대비체계 구축 7분 발언 후속사업 예정(1인시위 등)

▶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학교 “유자학교” 추진

・발제 : 박수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사무국장

・지자체와 제안하여 화학물질 시민교육 일환으로 진행한다.

・교육청과 제안하여 학교 교사 교육을 진행한다.(전교조와 협의)

▶ 배출저감제도 현황보고 및 감시

・10월 2일 220개 사업장 배출저감계획서 환경부 제출, 화학물질안전원 적절성 검토 중.

・환경부 지자체의 역할 연구용역(티오21) 진행 중, 11워 종료 예정

・지역대비체계 사업단 내 배출저감제도 연구회 운영, 11월 중순 1차 회의 예정.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와 연구회 회의결과에 따라 감시방안 12월 중 논의 예정

▶ 화학안전주간(11월 3~4일) 참여 건

・3일 온라인(줌) 기념식과 정책토론회에 지사별 1인 이상 참여한다.

・환경부 장관상 수상 : 전북건생지사 조성옥 대표, 충남건생지사 권경숙 집행위원(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차기회의 : 2월 중 일과건강 전체 총회에서 진행한다.

○ 2020-3차 전국 건생지사 온라인 중앙회의결과

- 일시 및 장소 : 12월 23일(수) 16시 ~ 17시, 온라인 줌회의

- 참석 : 경남(이선이,유정자), 전남(김대희,정병필), 전북(조성옥,한은주), 충남(신현욱,조정상), 평택(김지영,최춘식), 일과건강(현재순) 총 11명 참가

- 2020년 전국건생지사 및 화학물질사업평가

・6개 권역별 안전보건환경단체 ‘건생지사’ 집행체계와 일상활동이 안정

화 추세에 들어감.

・전남,전북,충남,평택 4개 건생지사가 비영리단체 등록을 마쳤거나 추진 중임.

・2회에 걸친 전국 건생지사 중앙회의를 통해 지역별 소통과 공동사업이 논의, 추진됨.

・코로나19라는 악조건에서 전남,전북,충남,평택 건생지사는 정기 운영진 회의와 일상적 활동으로 화학물질 시민강좌와 온라인 비대면 시민걷기대회를 진행함.

・환경부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에서는 전국 건생지사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함.

・경남,경북 건생지사의 집행체계와 일상활동에 대한 대책활동이 없는 한계.

・코로나19로 인해 배출저감제도 시행자체가 늦어지며 관련된 감시사업이 내년으로 순연.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 위한 1만인 서명운동과 사고대책활동과정에서 지역사회 이슈가 되는 사례가 있긴 했으나 전국적인 여론화와 법안 마련에는 미진했음.

- 2021년 조직적 전망과 주요 핵심 사업계획

・노동자・시민과 함께하는 전국 안전보건환경단체로서의 일과건강・건생지사 위상 구현

・건생지사 권역별 비영리단체 등록을 통한 자체 화학물질감시사업 집행체계와 재정 확보

・화학사고 근본원인 개선사업 : 노후설비안전관리특별법 제정운동

・사업장 배출제도 개선사업 : 화학물질 배출량저감제도 지자체별 감시운동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학교(유자학교) 만들기

・발암물질 사업장 배출과 대기노출로 인한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사업 전국화

▶ 경남 건생지사

· 선전전, 캠페인 코로나로 연기

· 11월 환경부 지역대비체계 구축 사업단 2차 회의 참여

▶ (경북)구미 건생지사 : 불참

▶ 전남 건생지사

· 온라인 화학물질 기획교육 진행, 비영리단체 등록 2021년 상반기

· 발암물질 배출저감제도 지자체 계획 및 지역대비체계 토론회 예정

· 2기 시민양성학교, 11회 시민걷기대회 계획

· 도교육청과 연대하고 환경교육센터와 공동으로 유자학교 실시

▶ 전북 건생지사

· 화학물질위원회 5월 발족, 군산시 앱개발, 코로나로 시민교육 연기

· 2021년 단체 등록, 사무실 개소 계획

· 군산시와 전라북도 교육청 유자학교 예정

· 전주시 화학물질안전관리 조례 등 감시활동

▶ 충남 건생지사

· 대산산단 폭발사고 대응, 2회 온라인 시민걷기대회 퀴지이벤트 개최

· 대산산단 안전진단 및 지역대비체계 구축 사업

· 2021년 비영리단체 등록, 노후설비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유자학교, 시민걷기대회 개최

▶ 평택 건생지사

· 2시 시민양성교육, 꿈의 학교 진행

· 자체 교육프로그램으로 유자학교 계획

- 2021년 본조 주요사업 논의

·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운동 : 정의당 정책위와 법안 초안 마련 중/ 화섬, 플랜트노조와 2021년 주요사업으로 추진_상반기 입법 캠페인 진행.

・배출저감제도 개선운동 : 지자체별 감시활동의 모범을 건생지사 마련함으로써 전국 확산의 계기마련/환경부와의 연구회 진행결과에 따라 지역상황에 맞는 활동전개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학교(유자학교) 만들기 : 발암물질국민행동,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권역별 5개 학급(선생님 5명 조직) 지원 논의 중/ 교육청과의 교사학습프로그램과 자체 시민교육프로그램 중 선택하여 추진./ 최소한 개별 기획을 통해 5개 학급만이라도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119 사업관련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지점이 반형되도록 집행/ 암환자 찾기 권역별 건생지사 역할을 추후 논의하기로 함.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하루 동조단식 : 줌 회의 이후 건생지사 임원진 텔방을 통해 제안/ 28일 월요일까지 동조단식 인증샷을 찍어 본조로 취합.

- 차기회의 : 2월 중 일과건강 전체 총회에서 진행한다.

○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운동

-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촉구 1만 오프라인 서명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0년 9월 25일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참석현황 : 정의당(강은미국회의원,보좌관2), 화학섬유연맹(위원장,정책,미비,선전,조직2) 전북건생지사 대표, 평택건생지사(사무국장,캠페인단장), 일과건강 총 13명

・1만 서명지 청와대 전달

<표 5> 산업단지 노후설비안전관리 특별법 최종 서명현황

구분	서명자수	구분	서명자수
전남	2417	수도권(평택)	480
충북	493	경북	471
경남	897	전북	1924
충남	3469	종합	10,151

-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법 제정 온라인 서명운동

・시기 : 10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30일간

・대상 : 산단 현장노동자 및 지역주민

・방법 :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 접속, [노후설비] 검색 후 서명참여.
주변 가족과 지인들에게 사이트 링크주소 보내기

・청원사이트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hKRqsF

- 선전홍보 사업

・웹자보1회, 영상물1회 홍보

・현장홍보용 2만부 전단지 배포(노후설비특별법/기업처벌법)

・마스트걸이 5천개 제작 전간부 배포(노후설비특별법/기업처벌법)

- 10회 산업재해없는 여수를 위한 시민걷기대회

・일시 및 장소 : 2020년 11월 06일(금) ~15일(일) 17시, 가사리 갈대밭 외 4곳

・방식 : 코로나19로 인해 집회와 온라인 웹을 이용한 걷기대회 혼합 방식

・일반시민 : 온라인 접수 및 각자 기간 내에 정해진 구간 걷기

・기념식 : 11월 6일 미평공원, 30여명 이내로 기념식 진행

・참여인원 : 총 936명(걷기 완료자 792명, 자원봉사 42명)

・게시판 사진 게시 : 227명 참여 선착순 200명 상품발송

・퀴즈 : 238명 참여 35명 오답 200명 선착순 상품발송

- 2회 화학사고없는 서산를 위한 온라인 시민걷기대회

・일정 및 장소 : 2020년 12월 7일~16일(10일간)
・방식 : 코로나19로 인해 구글폼을 활용한 퀴즈풀이 참여방식
・추첨행사 : 12월 18일 기념식 및 경품추첨행사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
・퀴즈내용 : 중대재해기업처벌법/노후설비안전관리특별법
・참여인원 : 총 936명 참여
・추첨결과 : 1등(1명) 50만원 상품권, 2등(1명) 30만원 상품권, 3등(1명) 20만원 상품권, 4등(10명) 21단 자전거, 5등(20명) 서산육쪽마늘

③ 평가

○ 성과
- 6개 권역별 안전보건환경단체 ‘건생지사’ 집행체계와 일상활동이 안정화 추세에 들어갔다.
- 전남,전북,충남,평택 4개 건생지사가 비영리단체 등록을 마쳤거나 추진 중이다.
- 3회에 걸친 전국 건생지사 중앙회의를 통해 지역별 소통과 공동사업이 논의, 추진되었다.
- 코로나19라는 악조건에서 전남,전북,충남,평택 건생지사는 정기 운영진 회의와 일상적 활동으로 화학물질 시민강좌와 온라인 비대면 시민걷기대회를 진행하였다.
- 환경부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에서는 전국 건생지사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 한계
- 경남,경북 건생지사의 집행체계와 일상활동에 대한 대책활동이 없는 한계

였다.

- 코로나19로 인해 배출저감제도 시행자체가 늦어지며 관련된 감시사업이 내년으로 순연되었다.
-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 위한 1만인 서명운동과 사고대책활동과정에서 지역사회 이슈가 되

는 사례가 있긴 했으나 전국적인 여론화와 법안마련에는 미진했다.

(2) 과로사예방법 제정 및 대응사업

① 목표

○ 2020년부터는 감정노동, 직장내괴롭힘의 문제를 '과로'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확대하는 사업을 진행.

○ 장시간 노동규제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 및 재량노동자, 제외업종 노동자, 특례업종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냄.

○ '과로사예방법'의 필요성을 알려냄.

○ 탄력근무시간제 기간 확대 시도 무력화.

○ 과로사 관련 뉴스와 사건을 모니터링 하고 대응을 진행함.

② 진행

○ 감정노동자전국네트워크 사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의제화하기로 사업계획을 세움. 실태조사 진행.

○ 서울시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사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업을 하기로 논의를 진행함.

○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및 대안 모색 토론회'(정의당·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주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과로사예방법으로 해결해가야한다는 발표 진행.

○ 당초 계획했던 캠페인 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진행되지 못함.
○ 2020년은 과로사 관련된 사업으로 주로 택배노동자 문제에 집중함.
○ 일과건강 향후 10년 활동 방향 논의 과정에서 과로사예방법 활동이 중점 사업에서 빠지고 취약계층 안전보건 사업으로 변경됨.

③ 평가
○ 비록 과로사예방법 제정 사업이 향후 중점 사업에서 빠졌지만 대책사업으로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또한 과로사아웃공동대책위원회가 아직 존재하고 있고 과로사예방센터도 존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함.

3) 포럼 및 활동가 양성사업

(1) 노동자건강권 포럼

① 목표
○ 전체세션 2, 부문세션 7로 구성. 200명 수준의 참여자를 조직함.
○ 노동자·시민의 안전보건 이슈를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문제인식을 심화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유함.

② 진행
○ 2020 노동자 건강권 포럼 공동기획위원회 구성하여 9개 세션으로 운영을 기획하여 장소도 확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함.
○ 당초 2월 개최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지속적으로 순연되다가 온라인으로 소략해 진행함. 6월 26일 변호사회관에서 유튜브 생중계. ‘코로나19가 한국사회 안전보건에 미친 영향과 전망’을 주제로 6인 발표.

a. 코로나 19 팬데믹이 부른 ‘과로사 예방법’ :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b. 삶이 무너지는 사람 살리기 : 하효열(통통톡 운영위원장)

c. 코로나19와 여성노동자 : 이을(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d. 코로나19 위기와 노동환경-콜센터 감정노동자를 중심으로 : 이성종(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집행위원장)

e.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f. 코로나 이후 마음의 변화 : 양선희(계명대 동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표 6> 포럼 정산

수입		지출	
참가비	240,000	발표비 6인	1,440,000
후원	3,000,000	회의비	73,900
계	3,240,000	중계료	1,540,000
		식대	45,220
		참가비 환불	100,000
수지	40,880	계	3,199,120

③ 평가

○ 연인원 154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조직 후원을 받아 진행하였고 참가비는 받지 않음. 온라인으로 진행한 구조로 보면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규모와 참여 연인원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음.

○ 오프라인 사업이 모든 조직에서 없어져 온라인에 의지하는 유효수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2) 안전보건 실무학교

① 목표

○ 신규 안전보건 활동가 및 보수 교육이 필요한 간부를 대상으로 활동력

강화 기본 교육을 제공하고 안전보건 네트워크를 확대하고자 함.

② 진행

○ 1박2일 충청권에서 진행하던 오프라인 방식을 기획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

○ 2020년 5월 21일(목)~22일 (금) 오후 2시~6시 30분, 온라인 진행 (본방, 재방)

<표 7> 안전보건 실무학교(온라인) 강의 구성

1강	개정 산안법의 모든 것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2강	공상 말고 산재보상	유성규 노무사
3강	근골/작측 건강한 일터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4강	직장내괴롭힘부터 감정노동, 과로까지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 참가자 107명(공공:21명_서울교통공사 16명, 금속:2명, 기타:5명, 보건:4명, 플랜트:2명, 학비:28명, 화섬:45명)

<표 8> 온라인 실무학교 정산

수입		지출	
참가비	1,860,000	강사비	1,600,000
		음료	17,300
		재방송 스텝식대	52,100
		zoom 이용료	182,668
합계	1,860,000	합계	1,852,068

③ 평가

○ 오프라인 교육 때와 다름 없는 규모의 참여가 이루어짐. 다양한 업종에서 유입이 되었으며 서울교통공사, 화섬, 학비의 경우 산별 또는 사업장 안전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집단적 참여가 이루어짐.
○ 후속 사업(코로나 이후 네트워크의 밤, AS톡 강의)이 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함.
○ 포럼처럼 교육에 있어서도 온라인 방식의 유효수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향후 양자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이 교육 영상은 '2020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 영상교육' 자료로 제작되어 제공됨.
○ 참가자 평가 : 앞으로 대면과 비대면 강의를 동시에 진행했으면 좋겠음. 교재 보충설명 필요. VOD 방식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도록 조치 필요. 직종 및 업종에 따른 별도 교육 필요.

4) 연대 및 대책사업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① 목표
○ 2020년 4월 두 번째 이천참사가 발생한 후 시민사회 및 정의당 등이 2020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목표로 설정함.

② 진행
○ 7월 운동본부가 결성되고 일과건강은 운동본부 집행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9월 중 10만 국민동의 청원을 이루어냄. 이후 7개 지역 운동본부의 출범, 시민사회 참여 단위를 확대하였으며 12월 유족 등 운동본부 성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21대 국회 정의당 1호 입법발의안)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 전까지 선전전, 지역 캠페인, 법사위 의원 입법 심의 촉구 등의 활동을 진행함.

○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불투명해지자 12월 28일 유족을 중심으로 한 2차 단식농성단이 대규모로 합류함. 언론을 조직하고 단식농성자의 메시지를 전국적으로 알려내고 소통하는 활동이 진행됨.

○ 대대적인 언론보도에 국회가 상당한 압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이후 임시국회를 통해 1월 8일 제정됨.

③ 평가

○ 2000년대 중반부터 노동자·시민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처벌이 강도 높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2017년에 와서야 노회찬 의원의 입법발의가 있었음. 그러나 제대로 논의되지 않다가 2020년 이천참사의 재발과 21대 국회의 출범이 맞물리면서 시민사회의 요구가 분출되었고 언론의 보도 태도도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되었음. 유족들의 결기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였음. 시민사회 곳곳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하면서 전국적인 분위기로 나아감. 일과건강의 지역조직 건생지사에서도 함께 참여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치고 우울해진 한국사회에 전해진 매우 중요한 메시지로 평가됨. 운동본부 성원도 2020년 본 법안이 제정될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쾌거임. 다만 사고사망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대상에서 제외된 점, 인·허가권을 가진 책임 공무원에 대한 처벌 문제가 제외된 점 등은 향후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한 영역임.

(2)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① 목표

○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과로를 없앨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적용함.

② 진행

○ 6월까지 매월 1명 수준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하자 7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출범함. 이미 노동조합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주축을 이뤄 대책활동이 진행됨. 시민사회단체 참여가 요구된다는 대책위의 요청을 받고 일과건강에서 합류함. 일과건강은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8월, 11월 두 번에 걸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안전보건 상의 문제점과 한국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어떤 차별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드러냄. 21대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접근하였으며 소비자 운동도 함께 진행되는 모습을 띰. 이로써 언론도 정론의 역할을 수행함. 이 때문인지 '택배 없는 날'이 만들어지기도 함.

○ 연말까지 지속되는 과로사 건마다 기자회견 등으로 맞섰고 추석 극성수기 과로사 증가 가능성으로 인해 분류작업 인력 투입 요구를 강력히 주장하여 미진하나마 일부 지역에서 인력이 추가 투입되기도 함. 한편으로 '공짜노동'인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에서 분리시키는 '생활물류법'을 제정하라는 요구를 중심으로 대응이 진행됨.

③ 평가

○ 노동조합 자체의 조직력과 대응, 시민사회의 목소리, 절절한 유족의 요구 등이 맞물리면서 언론환경도 좋아 대책위원회의 요구는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으로 이어짐. 정당 조직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을 가지기는 했지만 '생활물류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분류작업을 구획하지 않음으로 한계에 봉착함. 그러나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이 문제를 넘겨받아 타결하게

됨.

5) 조사사업

(1) 명화공업 수면장애 실태조사

① 목표

○ 2020년 주간연속 2교대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② 진행

○ 울산의 자동차부품 노동조합으로 2020년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할 계획을 가짐. 울산지역의 자동차 부품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조직에서는 상당수가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한 상태이며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물량이 줄어들면서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시기라고 판단함. 이에 따라 주야 맞교대 방식으로 수 십 년을 이어온 노동자들의 수면장애로 인한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고(주당 45시간 정도로), 심각한 수면장애 실태를 보였음. 불면증 자가진단 결과 중등도 이상의 불면증을 가진 집단의 규모가 70%를 넘었고, 우울 수준이 높은 집단이 우울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근골격계질환 증상을 호소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은 불면증을 보임. 주간 졸림증이 심한 집단의 규모는 62% 수준으로 나타남.

○ 정신건강에도 빨간 불이 켜있는 것으로 나타남. 우울 수준 평가한 결과 23.8%가 중등도 이상의 우울수준을 호소함. 일근자 대비 교대자의 고도우울 집단의 규모는 무려 3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높은 결근율로 이어지고 있음. 한 해 건강문

제로 결근한 경험자는 32.2%로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나라 평균값 14.4% 보다 두 배 높음. 결근일수에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③ 평가
○ 현장에서는 이런 조사가 거의 처음 진행되어 좋았다고 평가했으며 전조합원 교육을 희망함.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에 진행되지 못함.
○ 2020년 9월부터 사측과 교섭이 진행되어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합의함.

(2) 서울교통공사 승강장 안전문 분야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① 목표
○ 최근 승강장 안전문 분야 종사자 일련의 사망 원인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함.
○ 이를 위해 서울교통공사 내 승강장안전문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구조적, 우발적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함.

② 진행
○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 이후 민간업체 소속이었던 승강장 안전문분야 노동자들이 서울교통공사에 직고용 되었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됨. 그러나 내부 노동자 사이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정식 시험을 거치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음. 특히 나이가 기존 직원들보다 젊은 특성이 반영되면서 조직 내부에서는 하대를 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음.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청시절 겪었던 ‘을’로서의 위치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인 동시에 책임감과 업무량은 더 늘어났다는 점임. 뿐만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고용을 하다 보니 휴게시설, 샤워시설, 사무실 등이 거의 지원되지 못하는 상황이 존재하였음. 더 크게는 조직 내부의 관리·책임 단위가 만들어지지 않아 조직에 소속감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 우울수준 평가 결과 47%의 응답자가 심리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의 40%는 항상 감시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고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의 비율은 20%로 나타남. 고객스트레스 호소자도 35%였는데 큰 문제는 '승객 응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의 잘못이 아닌데도 회사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로 나타남. 서울교통공사 입사 전·후의 출동횟수에 있어 늘었다는 집단이 50%인 것으로 나타남.

③ 평가

○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졌던 '위험의 외주화 철회'라는 의제가 연착륙하지 못하면서 타부서 또는 상급자로부터 괴롭힘과 무시를 경험하고 차별을 심각하게 느끼게 함으로써 사직, 자살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 하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임. 거대 조직에서 소수 부문에 대한 관심이 노·사 모두 크지 않은 것이 문제임. 2021년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해야 하는 조건임.

(3) 도봉구 청소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① 목표

○ 2020년 신설된 서울시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첫 사업으로 공무관(노조 있음)과 민간위탁 된 청소노동자(노조 없음)의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통해 최근 도입된 환경미화원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제도개선을 제안하고자 함.

② 진행

○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만들고 있는 노동자 지원센터로 2020년 4월 정식 출범했고 첫 사업으로 청소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기획함. 향후 요양보호사, 건설노동자 등으로 실태조사를 확대할 기획임. 이 사업은 실질적 작업환경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더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음.

○ 도봉구에 직고용 되어 있는 청소노동자(공무관_가로청소)와 민간위탁 되어 있는 청소노동자(음식물, 재활용, 생활폐기물 수거)의 안전보건 실태를 조사해 절대적 위험과 차이를 확인하여 안전보건 수준을 동반 상향시킬 필요가 있어 이 내용에 집중함.

○ 지속적인 환경미화 노동자의 산재사망으로 2019년 4월 폐기물관리법에서 안전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이 배경에는 2018년 1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세웠기 때문임. 도봉구의 경우 청소차량 후방 영상장치의 경우 90%에 이르지만 안전멈춤바의 경우 50%가 채 되지 않고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탑재율은 57% 수준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도봉구는 주간작업으로 가장 먼저 전환한 사례였지만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소각장과 음식물 분류작업 시설과의 마찰로 안전 작업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큰 문제로 지적됨. 악천후시 작업중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고 3인1조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산업재해 발생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민간업체에서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인력부족과 마감시간 문제가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

③ 평가

○ 2020년은 문제를 밝히는 과정이었으며 2021년 의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구의회 의원 중 청소노동자 안전보건 및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어 향후 개선을 위해 적극 활동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함. 또한 조사과정에서 민간위탁 사업장(권역별 3개 업체)의 사업주 대표들을 만나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개별 노동자를 직접 만나 설문을 진행하면서 조직 사업을 수행한 것은 효과적이었다고 판다함.

(4) 숲과나눔 '코로나19, 안전을 위협받는 노동자의 목소리'

① 목표

○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와 코로나 외에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사회적으로 알려낸다.

② 진행

○ 코로나19 관련 고용노동부 정책 및 지침 분석

○ 코로나 관련 노동안전 이슈 분석

○ 노동자 인터뷰 (콜센터 노동자, 발전소 노동자, 이주노동자, 방과후강사, 헬스 트레이너, 학비 노조 등)

③ 평가

○ 코로나19 유행 과정에서 정부는 노동자 보호에 소극적이었으며, 정책이 감염병 예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을 확임함.

○ 코로나19와 공중보건 위기대응에서 노동자 건강권 관점을 확립할 것을 제안함.

○ 본래의 목표였던 영상 및 노동안전분야 영상 플랫폼 제작은 제외됨.

○ 각각의 인터뷰와 분석 내용을 적절하게 알려내려는 작업이 부족했음.

6) 대중미디어 사업

(1) 목표

① 회원관리 매뉴얼 구축 및 회원관리툴 제작

② 홈페이지 개편 및 지역소식 포스팅 활성화

③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대중사업 및 이를 통한 포털·SNS 강화

④ 일과건강 고유 콘텐츠 제작

(2) 진행

○ 건생지사 공동 회원가입서 제작. 지역소식을 중심으로 한 홈페이지 개편은 시도하지 못함.

○ 기부금 영수증 등 회원관리툴 제작 및 회원정보 통합 DB구축은 개인정보 등의 문제와 홈페이지 악성코드 유입 등의 이슈 발생으로 자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함.

○ 일과건강 웹진 및 소식지 제작, 행사 관련 영상 제작 등은 예년의 수준으로 진행됨.

(3) 평가

○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프로젝트 및 지역과의 관계 활성화는 진행할 수 없었음.

○ 2020년 한 해 동안 확인 한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노동안전문제는 계속되고 있으며, 교육 등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졌음을 확인.

○ 온/오프라인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활동 방식에 대한 필요성, 교육 콘텐츠 제작으로 다양한 수익창출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미디어 활동에서 벗어나 중점 사업 계획에 맞춘 미디어 활동 계획이 필요.

3. 일과건강 2020년 수지

(사)일과건강 결산서(2020.01~2020.12)

수입		지출		비고/수지
계정	금액	계정	금액	
1. 전기이월	20,031,233	1. 운영비계	65,255,372	
2. 후원금계	57,033,054	지역건생지사교부금	18,206,400	
회원회비	48,047,880	세금과공과금	89,500	
단체후원금	5,400,000	여비교통비	3,205,822	
잡이익	727,214	연대사업비	960,000	
일시후원	2,857,960	우편발송비	2,672,320	
		인쇄비	1,979,460	
		회의비	894,600	
		지급수수료	732,950	
		보험료	52,220	
		통신비	456,400	
		활동가수당	36,000,000	
		사무용품	5,700	
		잡지출	41,524	
3. 특수목적사업계	194,100,189	2. 특수목적사업계	194,051,377	48,812
포럼	3,240,000	포럼	3,199,120	40,880
실무학교	1,860,000	실무학교	1,852,068	7,932
서울시 녹색위	21,000,000	서울시 녹색위	21,000,000	0
아름다운재단	150,000,000	아름다운재단	150,000,000	0
숲과나눔	9,000,189	숲과나눔	9,000,189	0
전남교육영상	9,000,000	전남교육영상	9,000,000	0
4. 발암행동CMS	9,825,280	3. 발암행동CMS	9,825,280	0
수입계(1+2+3+4)	280,989,756	지출계(1+2+3)	269,132,029	(차기이월) 11,857,727

감사보고서

일 시	2021년 1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15분 - 11시 45분
장 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실
감사 자료	2018년 - 2020년 예산 및 결산서, 2021년 예산서, 2020년 회계 자료 일체(품의서, 법인 카드 사용 내역, 이체 확인증, 영수증, 금융기관 거래 내역 등)

감사 의견
위 일시, 장소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2018년 및 2019년, 2020년 예산 및 결산서, 2021년 예산서, 2020년 회계 자료 일체(품의서, 법인 카드 사용 내역, 이체 확인증, 영수증, 금융 기관 거래 내역 등) 등을 확인, 검토하고, 행정책임자 한인임과 질의 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전반적으로 2020년 수입 및 지출이 계획대로 잘 집행되었고 이와 관련한 결산이 잘 이뤄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클까봐 우려하였으나, 적절히 대응하시어 예년과 다름 없는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잘 적응하시어 예년 수준을 유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1년 1월 30일

감사 천 지 선 천지선

Ⅱ. 제2호 의안 :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 승인의 건

1. 2021년 안전보건운동 전망과 목표

1) 2021년 노동자 안전보건 운동 전망

○ 2021년은 연말에 가서야 코로나19의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추정되어 2020년에 이어 노동자 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큼. 또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통과되었지만 1년~3년이 유예되면서 기업의 문제인식 체감도가 크지 않을 것임. 이는 안전보건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특히 이천참사 경우처럼 비대면 배송물량이 늘어나면서 물류창고 건설에서의 공기단축 압력이 강해져 동시작업을 수행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질 수 있음. 특히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이 발표되었고 수도권 신도시가 속속 늘어나면서 건설업에서의 안전사고 문제가 기승을 부릴 전망임. 전반적인 실업상태가 가속화되는 반면 배송, 특정 제조업, 청소 등의 업무에서 업무량 증가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음. 이런 업종 노동자들은 안전보건 사각지대로 내몰릴 가능성이 큼.

○ 2021년 전체 안전보건운동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한 대응사업이 주가 될 것임. 5인 미만 사업장 배제 문제, 인·허가 과정에서 과실을 저지른 책임공무원 처벌 배제문제, 시행령 제정문제 등 때문임. 한편으로 ‘위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요구 또한 대두될 수 있음. 업무량 증가 업종에서는 ‘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고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사업장 집단감염 문제 또한 지속적인 의제로 떠오를 전망임. 이 때문에 유급병가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도 커질 수 있음.

2) 일과건강 활동 전망

○ 일과건강은 2020년 향후 10년 의제 논의를 통해 ① 안전보건취약계층 사회의제화 사업(직종별 순차 접근 방식)의 일환으로 배달노동자와 돌봄노동자를 선정하였음. 또한 ②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사업을 통해 전국의 숨겨진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가는 사업을 확정함.

2. 세부 사업 계획

<표 10> 2021년 일과건강 주요 사업

대분류	세부사업	시기
1. 회원사업	(1) 회원 사업(업종별, 지역별)	연중
	(2) 지역건생지사 사업(전남, 평택, 전북, 충남, 충북, 경남, 파주, 전국모임)	연중
2. 중점사업	(1) 직업성 · 환경성 암환자 찾기 사업	연중
	(2)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만들기 사업	연중
	(3) 취약계층 안전보건 사회 의제화 사업	연중
3. 포럼 및 활동가 양성사업	(1) 노동자 건강권 포럼	3월
	(2) 안전보건 실무학교	4월
	(3) 업종별 노동조합 활동가 양성 사업	연중
4. 연대 및 대책사업	(1) 중대재해처벌법 대책사업	연중
	(2)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사업	연중
	(3) 감정노동 및 직장괴롭힘 대책사업	연중
5. 조사사업	(1) 경륜 종사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연중
6. 대중미디어사업	(1) 주요 의제사업 홍보, 캠페인	연중
	(2) 홈페이지/웹진/소식지	연중

1) 회원사업

(1) 회원 계획

① 목표

○ 2021년 개인회원 50명 순증 계획으로 670명 확보. 단체회원은 불안정한 MOU 체계를 가진 조직을 정상화 하고 화섬과 금속, 공공에서 각 1개소 이상 확대 모색.

② 계획

○ 개인회원의 경우 지역 건생지사를 중심으로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사업을 통해 순증 활동을 벌임. 단체회원의 경우 가능성 있는 조직을 세부적으로 접촉하여 설득함.

(2) 지역 건생지사

① 전남건생지사 2021년 사업계획

○ 목표

- 지역사회 산업으로부터의 보건안전 대책과 화학물질감시 기획사업을 통해 회원을 배가하고, 조직의 체계 및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한다.
- 노동과 생활속에서의 안전사회를 이루기 위한 지역현안과 기획사업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여 나간다.

○ 조직의 집행 체계 구축과 운영의 안정화 도모

- 운영위원회의 분기별 1회(3월, 6월, 9월, 12월) 정례적 회의를 통한 현안대

응 모색
- 전체 회원모임 개최 : 정기총회(3월), 회원간담회(9월-10월)
- 집행위원회, 정책위원회, 자문단회의의 최소 연 2회 운영 추진
- 전라남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통한 필요 연구조사사업 재원확보

○ 지역현안 및 기획사업
- 시민과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지역 환경보건현안에 대한 토론회 추진
- 노후설비 안전관리 지역 확산을 위한 '방치하면 위험하다' 캠페인 사업
- 여수산단 및 광양산단의 노동자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사업

○ 전남건생지사 회원확대사업
- 상. 하반기 회원확대 주간 선정 : 200명 (2천만원) 회비조직화
- 회원확장운동 기간 선정 : 2021년 4월 중순 ~ 5월 하순 50일간 진행
- 대상 : 노동조합 및 단체, 개인 후원 조직을 통한 회원확장을 통한 재정의 자립화
- 회원단합대회 : 2021년 10월 하순 (가사리생태교육관 운동장)

○ 교육 및 상담 사업
- 제2차 2021년 화학물질안전교육 강사단 양성교육 추진
- 산업재해 및 지역현안 무료상담사업 전개
-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학교만들기(유자학교) 사업 : 전남(여수, 광양)지역 3개 학교

○ 제11회 산업재해 없는 여수를 위한 시민걷기대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0년 11월초순경 여수지역에서 추진

- 시민참여 : 1천명 참여 목표

② 평택건생지사 2021년 사업계획

○ 목표
- 유자 학교 강사 단 양성 교육 실시
- 환경감시단 활동 화학물질 감시 활동으로 체계 전환 및 감시단 연합 체계 구축 정기적인 감시캠페인과 교육 사업으로 지역 내 조직의 위상과 역할 강화
- 화학사고 지역대비체제 구축 지원
- 지역 전국 연대 사업(전국 네트워크 참여)

○ 총회 상반기 중 실시 : 운영진 구성 및 회원 관리, 조직 내실화 계획

○ 교육사업
- 평택 마을학교 화학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학교 교육 사업 공모 신청
- 평택시 환경아카데미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평택 만들기 시민 양성 과정 공모 신청
- 경기도 환경부분 사업 평택 물줄기 알아보기(평택 안성천, 진위천 역사) 공모 신청
- 3기 마주모 마을문화센터 공모 신청
- 평택 교육 단 구성 예정 현재 구상 중이고 강사 양성에 필요한 인원이 문제임.
- 시민 참여도 높이는데 중점을 가지고 홍보활동 강화

○ 지역 소각장 관련 반대 캠페인 및 환경감시단 연합 체계 구축
- 평택 지역 건설 계획이 있는 소각장 반대 운동 캠페인 실시
- 하천, 유원지 부근 쓰레기 및 폐기물 감시 체제에서 사업장 사용 물질 화학물질 알리기 캠페인 전환이 필요함. 단체 연합 체계 구축 진행 중이며, 초기 단계.

○ 화학사고 지역대비체제 구축 지원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캠페인 전개 실시
- 주요산단 산업단지 노후설비 개선촉구 〈방치하면 위험하다!〉 캠페인

○ 지역, 전국 연대 사업(전국 네트워크 참여)
-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사업 '당신의 암도 산업재해,환경성질환일 수 있습니다!' 캠페인

③ 전북건생지사 2021년 사업계획

○ 목표
- 비영리 단체 등록과 완주 초동주체 발굴
-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 실시
-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사업 지원(전주, 익산, 완주) 및 전국 네트워크 참여
-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장 산재 상담과 교육사업

○ 조직사업
- 완주조직을 운영할 주체 발굴.
- 비영리단체 등록

○ 화학물질 안전 관리교육

-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 (군산)
- 스마트폰 안전지도 웹 주민 교육과 홍보(군산)

○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사업

- 군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활동, 비상대응계획 수립, 안전지도 웹 완성후 활용방안 논의.
-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 및 토론회(익산. 전주)
- 화학물질안전관리 알권리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 및 토론회(완주)

○ 노동안전보건 산업재해 상담 및 교육 사업.

- 상담사업 : 산업재해 및 지역현안 무료상담사업 전개, 자문단과 연계하여 집행
- 교육사업 :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학교만들기(유자학교)

○ 전국 연대사업

- 배출저감제도 정착 및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사업
-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사업

④ 경남건생지사 2021년 사업계획

○ 목표

- 집행체계와 운영 정상화
- 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지역 내 조직 위상 정립

○ 집행체계와 운영 정상화
- 노동, 시민사회부문 집행간부 발굴과 체계 구성
- 분기별 운영진 회의 및 실무교육

○ 교육 및 캠페인
- 년 1회 화학물질 노동자, 시민을 위한 대중강좌(유자학교 등) 개최
- 전국 건생지사 공동캠페인(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개최

⑤ 충남건생지사 2021년 사업계획

○ 목표
- 건생지사 운영활동 강화와 지역사회단체와의 연계
- 지역 현안 감시캠페인과 정기교육 사업으로 회원을 확대 한다.
- 지역 감시 사업으로 서산시 화학사고 지역대비 체계 관련 단체로 참가.
- 지자체 비영리 단체 등록 준비

○ 정기적인 운영진 회의 및 회원모임을 통해 운영 안정화
- 운영진 회의 : 분기별 회의를 통해 각 사업별 점검회의 진행
- 회원 모임 : 분기별 대중강좌, 정기총회(3월), 및 송년회(12월)
- 상.하반기 회원 전체 단합대회 (산행 , 야유회)
- 회원 배가 운동전개로 100명이상 확보, 충남도에 비영리단체 등록

○ 지역감시와 교육 사업
- 서산.대산공단 현장감시단 참여와 전국 건생지사 공동 캠페인

- 제2회 화학물질 감시학교 운영(서산환경운동연합 공동주관)
- 사업장 악취관찰활동 및 사업장 민관합동점검 활동
- 반기별 화학물질 정기 시민대중강좌(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실시

○ 적극적인 화학물질 감시 및 노후설비개선 캠페인 진행
- 주요산단 산업단지 노후설비 개선촉구 <방치하면 위험하다!> 캠페인
-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캠페인 및 여론화 사업
-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사업 '암도 산재다' 캠페인
- 제3회 화학사고없는 서산만들기 시민 걷기대회

⑥ 경북 구미건생지사 2021년 사업계획

○ 목표
- 집행체계 구축과 운영 정상화
- 지역감시단 교육 및 대중 캠페인을 통한 지역 내 조직 위상 정립

○ 체계와 운영 정상화
- 노동부문 집행체계 구축을 통한 회원확대 사업
- 상하반기 운영진 회의 및 회원전체 모임

○ 교육 및 캠페인
- 년 1회 화학물질 노동자, 시민을 위한 대중강좌(유자학교 등) 개최
- 전국 건생지사 공동캠페인(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개최

⑦ 그 외 건생지사 2021년 사업계획

○ 충북 건생지사 : 충북노동자시민회의와 2021년 창립 추진
○ 수도권 건생지사 : 평택건생지사 조직확대

⑧ 전국 건생지사 전국회의

○ 년 3회 전국 건생지사 중앙회의 : 권역별 건생지사 임원진 참가
○ 권역별 활동과 공동사업 집행점검, 후속대책 사업 논의

2) 중점사업

(1) 직업성 · 환경성 암환자 찾기 사업

① 배경

○ 2018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세계 평균 질병산재사망은 87%, 사고 산재사망은 14% 비율이다. 질병사망이 압도적으로 높다. 유럽의 경우는 95% 이상이 질병사망이다. 우리나라도 2년 전부터 비율이 역전되어 64%가 질병사망이고 36%가 사고사망이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아직 부족하다.

○ 질병 중 직업성암 비율만 보면 더욱 심각하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년간 4% 정도를 직업성암으로 추정한다. 이를 적용하면 우리나라는 년간 9,600명(년간 전체 암환자 24만명) 가량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4년 간(2015년~2018년) 평균 143명에 0.02%에도 못미치고 있다. 2019년에는 205명이 인정받았다. 이마저도 10년

국가별 직업성암 승인현황(2019/2014)

국가	직업성암
우리나라	205명
핀란드	2,100명
이탈리아	10,610명
영국	13,336명
독일	17,700명

전 금속노조와 반올림의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 과정을 거치며 올라온 수치이다. 다시말해, 대기업노조와 전자산업에 국한된 직업성암 승인율인 셈이다.

○ 우리나라는 2012년 구미불산누출사고와 2016년 가습기살균제참사를 거치며 화학물질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지고 2018년 직업성암 인전기준이 개정되면서 직업성암 승인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2018년 안양 연현마을, 2019년 익산 장점마을에서 발생한 집단 환경성암은 지역사회에 큰 이슈가 되며 발암물질로 인한 안전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대중참여 운동으로서 화학물질운동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이다. 이에 전국적인 암환자 찾기와 제도개선사업을 통해 노동자·시민이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② 목표

○ 현장과 지역에서의 발암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성·환경성 암실태를 알린다.

○ 직업성·환경성 암환자에 대한 보상과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발암물질 배출저감제도와 암환자 보상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③ 사업내용

○ 암환자 찾기 사업

-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119’ 신고상담센터 운영, 항시적 산재신청체계 구축
- 전국 주요산단 노동자, 주민 대상 암환자 찾기 ‘암도 산재다’ 캠페인

- 온·오프라인 홍보물(리플렛 및 영상) 제작, 배포 등 선전홍보

○ 제도 개선 사업
- 2월 : 우리나라 직업성암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 3월 : 직업성암 전국화 방안 마련 워크샵
- 4월 : 전국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운동 선포식
- 5월~6월 : 업종별, 지역별 암 신청, 보상 및 사후관리체계(피해자모임 등) 구축
- 암환자 보상 및 관리제도 개선(건강관리수첩확대/퇴직자관리제도 등)

(2)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만들기

① 목표

○ 전국 건생지사 집행체계 완성과 안정화 사업
○ 배출저감제도 정착 및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사업
○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학교만들기(유자학교) 전국화 사업

② 계획

○ 전국 건생지사 집행체계완성과 안정화 사업
- 권역별 건생지사 운영위 확대와 정기회의 개최
- 전국 건생지사 중앙회의 년 3회 실시(2월, 6월, 10월)
- 권역별 화학물질 노동자•시민강좌 기획교육 및 대중문화행사(걷기대회,온라인퀴즈) 개최
- 권역별 감시단 공개모집 및 운영과 전국네트워크 구축 사업 참여

○ 배출저감제도 정착 및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사업

- 실효성있는 배출저감제도를 위한 권역별 토론회 및 캠페인
-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개정 및 배출저감감시운동 모범사례 발굴, 확산운동
- 노후설비 안전관리을 위한 워크샵, 토론회 및 〈노후설비, 방치하면 위험하다!〉 캠페인
-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입법발의 및 제정운동

○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학교만들기(유자학교) 전국화 사업

- 교사와 학생들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용저감을 위한 실천활동 촉진
- 어린이에게 안전한 제품의 생산과 유통, 사용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 인식개선과 실천활동을 위한 교육·캠페인 지역 건생지사와 연계하여 활동지원(40개 학급)
-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용품 사용을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생산자·교육청·시민사회)
- 사이버교실 구축을 위한 어린이 안전마크 공모전

<표 13>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기획교육

1. 배경

○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제정과 배출저감 의무화제도 시행에 따른 노동자, 주민의 참여영역이 확대되었고 노동자, 주민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 지역별 감시활동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수행할 감시단원 및 활동가 양성이 필요한 상황임. 이를 위해 권역별 노동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교육이 필요함.

2. 목표

○ 권역별 정기적인 시민강좌를 정착시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 시민강좌를 포함한 기획교육을 통해 권역별 화학물질 활동가를 양성한다.

3. 방법

○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시민강좌를 개설한다. 민협력단체(지역환경운동연합,지역녹색환경센터)

○ 표준 강좌프로그램과 지역별 모범사례를 담은 공동교안을 마련한다.

○ 시민강좌 수료자는 건생지사와 함께 감시활동을 진행한다.

4. 프로그램

	강의내용	강사진
1강	화학물질안전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운동	일과건강 • 건생지사(현재순)
2강	화학사고 시 지역대비체계 구축 현황 알아보기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단(김신범, 윤은상)
3강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 비상대응메뉴얼 알아보기	지자체 담당자(청주,수원,군산,여수)
4강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학교만들기(유자학교)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박수미)
5강	생활 속 화학물질 위험성과 화학제품 안전하게 사용하기	노동환경건강연구소(김원, 최인자)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박수미)
6강	현장견학(사업장,화학방재센터,환경유역청,노동환경건강연구소)	지역 시민단체 담당자
7강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화학물질 감시활동 알아보기 수료식	지역 시민단체 담당자

<표 15>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방치하면 위험하다’ 사업

1. 배경

○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계속되는 산업단지 및 그 외 지역에서의 화재, 폭발, 누출 등으로 노동자는 물론이려니와 지역 주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 이러한 화학사고의 주요원인을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의 최근통계로 살펴보면 시설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40%로 가장 큰 원인이다. 노후화된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주요원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 계획예방정비에 소요되는 수선비가 제조원가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제조원가에서 원재료비나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수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노후설비에 대한 예방정비가 제대로 안되면서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화학사고 원인분석
(2014~2019 환경부)

사고원인	발생률
시설관리미흡	41 %
작업자부주의	36 %
운송차량사고	20 %
기타	3 %

○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특별법은 있지만 정작 더 위험한 산업단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법제도가 없는 현실이다.

2. 목표

○ 현장노동자와 지역주민에게 화학사고의 주요원인을 알리고 산업단지 노후설비의 위험성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여론화한다.

○ 노후설비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등 법제도를 마련한다.

3. 사업내용

1) 캠페인 사업

① 7개 권역별 화학물질 감시체계 동시공동행동(경기/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

② 2020년 상반기(4월) ‘방치하면 위험하다’ 캠페인 진행

③ 내용 : 화학사고 원인, 노후설비관리실태, 개선방안 주요거점별 온/오프라인

홍보 2) 제도개선 사업 ① 3월 :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법안 마련 워스샵 ② 4월 : 국내외 사례연구 및 개선방안 토론회 ③5월~6월 : ‘노후설비, 방치하면 위험하다’ 전국 캠페인 ④ 7월~8월 : 법안 발의 및 제정 청원운동 ⑤ 특별법내용 :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교체 및 사용제한 등 안전조치/관리비용 지원 등 조치

(2) 취약계층 안전보건 의제화 사업

① 목표

○ 택배 과로사, 이륜차 배달 중 교통사고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냄.

(최근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18~24세 산업재해 사망자 중 배달사고 사망자 수가 44% 차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노동자성 인정을 못 받아 겪는 안전보건 상의 문제점을 드러냄.

(예: 배달대행용 이륜차 종합보험료 연 800~900만원)

○ 이해당사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제도개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자료 설계, 시민사회 참여 등을 이끌어 냄.

<표 18> 배달 노동자 조직별 주요 의제

직업	개별 의제	공통 의제
라이더 (퀵)	-일방적 계약해지(평점 문제) -배달수수료 일방적 다운 -매연노출에 따른 폐질환과 호흡기질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불안정 고용 -산재보험 대상은 됨 -고객 갑질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시간 큰 차이 -사고 및 근골질환에 상시노출 -악천후 시 옥외작업 문제
택배	-장시간 노동(공짜 분류노동) -대리점(원청) 계약 갑질	
대리운전	-음주고객 문제	

<표 19> 주요 돌봄노동자 규모와 노동환경

종류	규모	노동조합	노동환경	주요 요구
노인요양서비스	2019년 기준 요양보호사 취업자 38만 명 (자격증 소지자 150만 명)	-서비스연맹 소속 2천여 명 -공공운수노조 소속 약 300명 -주로 시설노동자로 조직됨	-재가 노동자(70%)와 시설노동자(30%)로 구분됨. 재가의 경우 최저임금이 안됨 -재가 노동자들의 경우 이용자 또는 가족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나 모멸감이 문제. 시설노동자들은 시설 내 최하노동자로 취급받는 문제 등 -연령이 높아 근골 등의 문제 일반적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인력확충과 유급휴일 대체적용 요구 -1인이 15~30명 돌봄 문제 -요양기관 비리 문제 -일방적 해고 문제
아동보육서비	2019년 기준 24만 명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약 500	-국공립(9%), 민간(35%), 가정형(50%)	-근무 중 쉴 시간이 없다는 점

종류	규모	노동조합	노동환경	주요 요구
스		명.	으로 크게 구분됨. -가정형은 2~3명이 고용된 구조라 원장의 직접적 통제를 겪음.(페이백 등) -과도한 부모의 요구 등이 문제 -근골문제	-노조가입에 따른 해고 -원장의 비리 문제 -보육교사 1명당 23명 감당(유럽 평균의 3배 이상) -어린이집 안전사고 4년 새 1.3배 증가
가사서비스	2019년 기준 30만 명으로 추정	-사회적 기업·협동조합협의체 '우렁각시'(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YWCA연합회 -95%는 유로 직업소개소 이용	-(성)폭력과 무시 등 스트레스 -연차 등 적정한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휴식시간 지원 필요 -근골문제	-근로자성 인정(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표준계약)

② 계획

▶ 배달 노동자·돌봄노동자 등 분야별 건강장해 실태조사

○ 택배, 라이더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건강장해 조사

○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작(보도자료 배포), 국회 토론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회적인 이슈 제기

▶ 배달 노동자 등 건강돌봄 캠페인

○ 배달 노동이 야기하는 여러 문제의 해결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위하여 대중캠페인 전개

○ 배달 노동자 문제에 관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 온라인 콘텐츠를 블로그, SNS,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통해 캠페인 내용 확산

○ 관련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캠페인을 조직해 정부 정책 변화 및 시민 참여와 실천행동 조직

<표 20> 취약노동자 의제사업 일정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전인터뷰	○										
조합원(회원) 설문조사		○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								
의제발굴 논의				○							
캠페인 기획 및 홍보영상 제작				○	○						
캠페인 진행						○	○	○	○	○	
평가											○

<표 21> 실태조사 주요 내용

범주	세부내용
1. 인구학적 특성	성별/나이/거주지역/업무지역/경력/입직경로
2. 노동조건	노동시간/휴식/휴일/소득 수준/소득 구조(건당 수입, 수수료 등)/이동거리/업무(량)확정 방식/업무 재량성
3. 안전	사고 재해 유형/발생률/발생 요인
4. 보건	질병 유형/발생률/발생 요인/건강검진 수검여부/건강검진 요구도
5. 산안법	산안법 상 보호조치 적용 여부
6. 개선	고용/소득/안전보건/인권/그 외

3) 포럼 및 활동가 양성사업

(1)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

① 목표

○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 노동안전 이슈를 공유함.

○ 노동안전보건 이해당사자와 연구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참여를 독려하여 사회 의제화를 위한 저변확대

② 계획

<표 22>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 기획초안(온라인)

1. 개최 일시 : 2021년 3월 26일(금)~27일(토)
2. 참여 방식 : 온라인 줌웨비나를 통해 발표, 참여
3. 세션 배치 : 세션별 순차 진행(각 세션 1시간 30분_발표, 질의, 토론)
4. 슬로건(안) : 코로나19가 가져온 안전보건의 "K" 격차 해소를 위한 모색
5. 주요 세션

주제	담겨야 할 내용	준비 단위
1. 상병수당 도입	*코로나 방역 중 '아프면 쉬기'가 제시되었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음. 일당을 포기하거나 기업 내 공식적인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 이제 해외에서처럼 한국도 상병수당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모든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상병수당은 방역과 노동자 건강 확보라는 점에서 강조되어야 할 영역. 어떤 경로를 설정할 수 있을지 적시 필요.	*직업환경의학의사회(강모열)
2. 코로나19와 필수노동	*코로나19 이전에도 증가추세였고 코로나 이후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노동 분야가 배달, 돌봄, 청소, 방문 영역임. 이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의제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대한 총괄적 접근이 필요함.	*일과건강, 서비스연맹, 한노보연
3. 산재보험 현실화	*산재보험은 산재를 당한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이나 이 보장성이 약해 사회보험으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적시하고 개선의 방향을 제시	*반올림, 노건연
4. 차	* 감정노동, 직장내괴롭힘, 조직별 평가제도 등은 코	*시민건강

별적으로 악화되는 정신건강	로나시대 저임금 여성노동자 군을 대상으로 더욱 심각한 코로나 블루를 형성해 가고 있음. 이에 대한 현황 등을 소개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함.	연구소(김명희)
5. 중대재해처벌법	*드디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와 향후 과제(K격차 해소 가능성을 중심으로)	*민변 또는 총연맹

6. 일정

	2월		3월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 발표세션 확정(기획, 사회자, 발표자 등)	○					
2. 발표 시간대 확정		○				
2. 후원요청		○				
3. 웹자보 등 홍보		○		○		○
4. 줌웨비나 사용 방법 공유					○	
5. 포럼 진행						○

▶ 주관 · 주최 :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 공동기획위원회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과로사예방센터,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자건강권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시민건강연구소,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원회, 일과건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환경노동위원회,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직장갑질 119, 통통톡,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2) 노동안전보건 실무학교

① 목표

○ 전국, 전업종을 포괄하는 국내 최대 노동자 안전보건 양성과정으로 자리매김 함.

○ 보수교육과 신입활동가 교육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연맹단위에서 진행하지 못하는 컨텐츠를 공급.

② 진행

○ 4월 중 2일에 걸쳐 4강(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보상, 안전보건_근골・위험성평가・작업환경측정・정신건강이슈, 안전사고)을 배치. 온라인 생중계 진행. 이후 재방 진행.

○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산별이나 단위사업장 적극 유입 계획.

(3) 업종별 안전보건활동가 양성 교육

① 목표

○ 업종별 위험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업종에 특화된 교육 내용으로 해당 분야 활동가를 양성함.

○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화 과정까지 포괄함.

② 진행(오프라인, 온라인 병행 계획)

○ 궤도분야 전국단위 활동가 양성사업(하반기)

○ 플랜트 신규 활동가 양성(하반기)

4) 연대 및 대책사업

(1) 중대재해처벌법 대책사업

① 목표

○ 법 제정과정에서 누락된 ‘중대산업재해 5인 미만 적용제외’와 ‘중대시민재해 소상공인 적용제외’, ‘발주처의 공기단축에 대한 처벌’, ‘공무원 책임자 처벌’ 등에 대한 필요성을 환기함.

○ 수사, 기소, 재판과정에 대한 개입과 감시를 통해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

② 진행

○ 2021년 2월 중 운동본부 전체 평가회의(3회) 및 토론회를 거쳐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살피고 향후 과제를 도출함.

○ 운동본부는 해산하지 않고 완전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5인 미만 사업장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역 운동을 수행함.

○ 유예기간 연장 등의 퇴행적 법개정 시도 등에 대해 대응함.

○ 하위법령 대응 사업도 진행 계획. 법률과 건강권 단위 중심으로 대응 팀 구성하고 하위법령 위임 3개 조항[1]에 대한 대응 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

---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회를 대상으로 대응함.

(2)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사업

① 목표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진행된 합의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진행함.

○ 금번 합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유통업체(쿠팡, 마켓컬리, 이마트, 롯데마트 등)에 전속된 배송노동자와 터미널의 분류 노동자 문제를 추가로 제기함.

② 진행

○ 상반기까지 분류작업 인력투입 등의 상황을 감시하면서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활동을 지속함.

○ 택배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요구함.

○ 쿠팡처럼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프면 쉬기’가 가능한 유급병가제도 도입을 요구함.

(3) 감정노동 및 직장괴롭힘 대책사업

① 목표

○ 감정노동자 모범 매뉴얼을 제작하여 사업장 단위에 배포함. 이를 통해 사업장 내 노사합의를 통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감정노동자 보호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각 산별 조직에서 제안하고 있는 법 개정 사항을 정리하여 의제화 함.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진행

○ 산별 및 연맹별 사업장 단체협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상반기 중 감정노동자 모범 매뉴얼이 채택될 수 있도록 감정노동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을 진행

○ 감정노동, 직장괴롭힘 실태조사를 진행. 코로나19이후 악화 양상을 드러냄.

○ 직장괴롭힘 금지 규제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전환, 벌칙 강화 요구 등을 캠페인을 통해 제기함.

5) 연구 조사 사업

(1) 경륜선수 안전보건 실태조사

① 목표

○ 경륜선수의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통해 각종 사고 위험 원인과 돌연사 원인을 밝히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함.

② 진행

○ 경륜선수의 경우 주기적인 기록측정을 하기 때문에 무리한 훈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젊은 나이에 돌연사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훈련을 위한 합숙 시설의 부절적성도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위험성 평가를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임.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있어 대한체육진흥공단과의 단체교섭도 가능한 상황임.

6) 대중미디어 사업

(1) 목표

① 집중 사업 알리기

② 기존 미디어 활동 강화

(2) 계획

① 직업성암 119 유튜브 채널 운영

- 격주 실시간 스트리밍 진행 (20분 이상~1시간 내외)
- 사회자+의사/변호사/산업보건전문가/노무사 중 1인 게스트 구성 (게스트 두달에 한번 꼴)
- 3월 선포식 이전 기획안 마련, 선포식 이후 진행
- 5분 직업성 암, 산재, 행정소송, 산업안전 일반에 대한 강의 진행 후, 질의응답 및 그간 상담센터를 통해 온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
- 암환자 관련 커뮤니티와 협조 비공개 강의 등 기획

② 취약계층 노동자

- 배달노동자 등 안전보건 의제화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사업
- 일과건강,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진행했던 취약노동자 관련 운동을 정리하고, 그 이후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추적함.
- 시기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아카이브 공개 이후
- 주제 : 환경미화원, 마트노동자(의자, 박스 등), 경비원 등 6 분야
- 방식 : 일과건강 웹진 및 소식지 연재 / 네이버 포스트 등록

③ 기존 미디어 활동 강화

- 웹진 12회 (마지막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발행, 호외호 10회 이상 발행
- 분기별 소식지 발행

- 일과건강 기록물 (사진, 영상, 글) 정리 작업 진행
- 언론 기획 강화 : 사전, 사후 보도자료 작성 및 공유 / 사진 영상 작업 행사 또는 기자회견 당일 공유 / 언론조직 주소록 강화

3. 일과건강 2021년 예산계획

(사)일과건강 예산서(2021.01~2021.12)

수입		지출		비고/수지
계정	금액	계정	금액	
1. 전기이월	11,857,727	1. 운영비계	60,761,741	
2. 후원금계	57,033,054	지역건생지사교부금	19,116,720	
회원회비	50,450,274	세금과공과금	93,975	
단체후원금	5,670,000	여비교통비	3,366,113	
잡이익	700,000	연대사업비	1,008,000	
일시후원	2,500,000	우편발송비	2,805,936	
		인쇄비	2,078,433	
		회의비	939,330	
		지급수수료	769,598	
		보험료	54,831	
		통신비	479,220	
		활동가수당	30,000,000	
		사무용품	5,985	
		잡지출	43,600	
3. 특수목적사업계	124,800,000	2. 특수목적사업계	124,800,000	
포럼	3,000,000	포럼	3,000,000	
실무학교	1,800,000	실무학교	1,800,000	
서울시 녹색위	20,000,000	서울시 녹색위	20,000,000	건강한 생활 환경 만들기
아름다운재단	100,000,000	아름다운재단	100,000,000	건강한 학교 만들기
4. 발암행동CMS	9,800,000	3. 발암행동CMS	9,800,000	
수입계(1+2+3+4)	203,490,781	지출계(1+2+3)	195,361,741	(차기이월) 8,129,040

* 개인회비 수입은 연간 5% 증가, 단체회비 수입은 소폭 증가를 계획함. 그 외 수입과 지출도 5% 증가 수준으로 설정함. 활동가 수당은 전년보다 감소한 규모로 설정함. 매년 1천만 원 가량의 전기이월금을 발생시킬 계획 하에 설계됨.

Ⅲ.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1. 2019년 총회에서 선임된 감사 연임 건

○ 2019년 총회에서 이사(임기 3년), 감사(임기 2년)를 모두 선임(또는 연임)함. 따라서 2021년 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해야 함. 현재 천지선 감사, 유성규 감사가 선임된 상태이며 2021년 1월 17일 유성규 감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서를 제출함. 이에 따라 천지선 변호사의 연임 여부 확인과 신규 감사 선임이 필요함.

Ⅳ. 제4호 의안 : 기타 안건